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6. 1. 20.(화) 16: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해외에서도 끔찍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저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시 후보의 테러 예방 대책 TF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선대위의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후반에 공공연하게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윤위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하건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된 시기였습니다. 어쩌다 하루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테러는 그 테러의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누가 선거 시기든 아니든 피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치안 역량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 저의 긴장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정도 테러

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경호는 가능하지만 한달 이상 경호를 하거나 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관련된 치안 대원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제가 그걸 지켜봤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첫째,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시기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예방을 총괄해 본 경험이 있는 제가 오늘 다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오늘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저로서는 묘한 감회,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지정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관계기관은, 테러 지정 여부를 비롯한 오늘의 안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대테러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후속 조치사항들은 철저하게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